

2009년 기축년 새해,
월간 「방송과기술」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표지 이미지 : 새로운 시작과 열정

회원 여러분들께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 지면 재배치와 디자인을 일신하고자 수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주제의 다양화를 시도했고, 판형 변경 및 지면을 컬러화해서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이재명



+ 이재명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기축년 새해를 희망차게 열어갑시다



2009 기축년(己丑年) 소띠 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해에는 회원 여러분 가정과 회사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방송계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송융합이라는 새로운 조류에 따라 IPTV가 본 서비스를 시작했고, 정권에 의한 지상파 방송의 정체성을 둘러싼 거센 파도가 휘몰아 쳤습니다. 국가경제가 악화되면서 광고시장도 크게 위축되어 회사마다 임금이 삭감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 한해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수한 일들이 단기간에 벌어졌습니다. 연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과거 수십 년 만에 걸쳐 성숙되어 온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일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정권이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박탈하는 작업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급기야 벼랑 끝에 내몰린 언론인들은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1개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인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언론인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7,847명이 동참했고, 10월 24일에는 YTN 앞에서 '언론인 시국선언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제정, 공포된 디지털TV전환 특별법과 7월에 제정된 시행령은 ▲저소득층 및 비전환자에 대한 지원조항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환경개선에 대한 정부 의지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 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지난 10월 말에 DTV코리아가 출범했지만, 참여 회원사들의 소극적인 자금 출자와 정부의 지원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음으로 향후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아날로그TV 종료이후에 방송용 주파수가 남는다는 가정 하에 채널 52~69까지 18개의 채널을 회수하여 통신용으로 재할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방송사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방송사 실무진과의 협의 과정도 비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방송사의 의사는 대부분 무시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당초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송용 주파수가 회수되면 유료방송으로 구성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유일한 무료방송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선택권을 뺏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말에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장악 7대 악법은 신문과 재벌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보호법 등 언론관련 모든 법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신문과 재벌이 모든 방송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여론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눈, 귀,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연합회가 발간하는 '방송과 기술'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회원 여러분들께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 지면 재배치와 디자인을 일신하고자 수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주제의 다양화를 시도했고, 판형 변경 및 지면을 컬러화해서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대형 서점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홈페이지 개편을 기회로 홈페이지에서도 지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여건이 좋아지면 과거의 자료도 DB화하여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회원 및 관심 있는 일반 구독자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제, 내용의 깊이 등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담당 기자에게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송과 기술에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온 자력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꼭 참고 이겨내면 하반기에는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정리되고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활기차고, 용감하게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 방송기술인들의 본래의 모습이고,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합회는 회원사 및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외부단체와 연대 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